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5. 5. ~ 5. 11.

페이지	제 목	비 고	유형
2-3	한국 스마트팜 관련정책 20개국에 소개	디지털타임스	인터넷
4	화성시, '스마트팜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nps통신	인터넷
5	눈높이 스마트 팜 구현...상주, 'IoT 축우시스템' 설명회 개최	경북일보	인터넷
6-9	성주군, '스마트팜' 육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참외 관리	경북일보	인터넷
10	이수화학, 스마트팜에서 담양 딸기 대규모 재배	EBN	인터넷
11-12	경북도립대 전기전자과, 스마트팜서 현장 학습중심 MT진행	신아일보	인터넷
13-19	스마트농업 날개 펴다	전북중앙	인터넷

한국 스마트팜 관련정책 20개국에 소개

이개호 장관, 농업장관회의 참석
농업 분야 혁신방안 주제 토론

황병서 기자 | 입력: 2019-05-09 17:56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G20(주요 20개국)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일 이 장관이 오는 11~12일 일본 니가타시(市)에서 열릴 2019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당시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고 수출이 제한되는 등 국제 식량 수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G20 회의에서 식량 안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식품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까지는 의장국 재량으로 열리다 2017년부터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농식품 분야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모범사례'다.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 지역 고령화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분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국가 프로젝트로서 시행하고 있다.

분임 토론이 끝난 후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은 장관 선언문이 발표된다.

한국을 포함해 영국, 중국, 이탈리아 등 G20 국가들과 칠레, 네덜란드, 세네갈,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등이 초청국으로서 참석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오는 10일 도쿄에서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장관은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 김치수입협의회 등의 대표 등과 함께 일본 내 판로 개척 등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화성시, '스마트팜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2019-05-08 11:20, 남승진 기자

#화성시, #스마트팜, #김현태, #농업, #태안농협

국비 8500만원 지원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스마트팜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스마트팜 설치 운영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화성시는 8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스마트팜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현태 화성시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수 한국노총화성지부 의장, 김형규 태안농업협동조합장, 최광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생 등 25명이 참석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

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구직자, 귀촌 희망자, 농장 운영자 등 1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화성지역지부가 스마트팜 운영 관련 기초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심화교육 등 이론·현장실습등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태 과장은 "관내 청년·농업인들이 희망·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에 앞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눈높이 스마트 팜 구현...상주, 'IOT 축우시스템' 설명회 개최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07일 17시 59분 | 지면계재일 2019년 05월 08일 수요일 | 9면 | 댓글 0



상주 명실상갈 한우 홍보 테마타운에서 축산 분야 IOT 축우 관리시스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상주시가 스마트 팜 활용 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지역 내 축우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IOT 축우 관리시스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라이브텍과 리얼팜, 대동테크(히트클), 우양코퍼레이션, 파우스 등 5개 ICT 업체를 초청해 IOT 축우 관리 시스템 활용과 제품 설명, 질의 응답 순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

참석 농가들은 "지루한 축산 정책이나 사업 설명회 인줄 알았는데 축산업 현장 눈높이에 맞는 ICT 업체들이 직접 설명을 해줘 업체 간 기술과 가격 등 장 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ICT다, IOT다, 스마트 축산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그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이 풀렸다"고 말했다.

안영목 축산과장은 "상주시는 현재 예산 4억 480만 원을 들여 68명으로부터 예비신청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ICT 기술보급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IOT 축우 관리시스템 사업은 번식 우의 정확한 발정 탐지와 분만 알림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표준 사업비는 두당 3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 '스마트팜' 육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참외 관리

권오환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09일 20시 2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0일 금요일 | 15면 | 댓글 0

지상지하부 각종 자동제어 원격시스템 도입 경영비 절감 효과
2022년까지 17개 농가 40억 투입...품질·안정성 등 향상 기대
용암농원 배점호 대표, 스마트 팜 농장 시범 운영...연 매출 2억



백삼현·황영순 부부가 컴퓨터 원격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팜 영농기법을 구현하고 있다.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고의 명품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의 참외 집단재배단지가 낙동강을 걸으며 활활하게 펼쳐져 있다.

아삭하고 달콤한 매력의 성주 참외, 여름 제철 과일로 각광 받고 있는 성주 참외의 새로운 생산·보급체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참외재배 형태에 알맞은 '스마트 팜' 보급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군은 스마트 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급 우선 순위를 정해 생산성과 품질 고급화 그리고 안전성, 경영비 절감 등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군의 새로운 영농기법 구축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농정부서도 예외는 아니다.

군과 농업기술센터는 우선적으로 성주형 '스마트 팜'에 대한 정의를 정립했다.

'스마트 팜'에 적용될 시설은 기존 참외재배 하우스의 자동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온덮개자동개폐기와 측천창자동개폐기, 관수관비 시스템 도입(지하 환경 정밀제어)그리고 기타 자동제어시설로는 공기유동장치, PH(산도), EC(전기 전도도), 수분, 온도, 지온측정과 제어시설 등이 추가된다.

따라서 지상부의 각종 자동제어장치를 원격 제어하고, 지하부의 토양 양수분을 정밀하게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고품질의 참외를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것이 '스마트 팜' 시스템으로 정리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7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어기, 환경측정 장치, CCTV카메라 등의) '스마트 팜'을 설치하는 원격제어 시설을 갖추고, 자동관수관비장치와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한 정밀 관수관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계획이며, 4년 주기로 지속해서 '스마트 팜' 농가육성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시범농가에 대한 스마트 팜 교육과 벤치마킹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시범 농가 선정을 통한 본격적인 스마트 팜 환경 구축과 함께 CCTV 영상 등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인터넷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기센터는 이 같은 스마트 팜 재배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은 작물별 생장 DB(데이터베이스) 운영정보를 기초로 한 과학적인 관리로 품질 향상과 더불어 스마트 폰의 원격제어로 생력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와의 협력교류를 통해 스마트 팜 표준모델 설정과 참외 양액재배 연구로 양액을 통한 양수분 관리방식 비교, 인공지능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연구 적용 등에 집중하고, 농가의 유지보수 애로를 비롯한 AS 대응과 함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농가만족의 회선 설치 등을 위해 KT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한편, 전국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성주참외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의 발전적인 역사를 가늠해본다.

역사적인 고문헌에는 성주참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970년 이후 출간된 문헌에서는 성주참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이전에는 수박과 참외를 맥간작으로 노지재배했고, 대부분 자가 소비된걸로 기록됐다.

성주참외의 본격적인 직파와 온상육묘를 소규모로 시작한 시기는 1957년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 후 1964년 접목과 터널재배가 시작됐으며, 주된 재배용지가 전에서 답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됐고, 1967년부터는 일부 농가에서 하우스 육묘를 실시해 멀칭 터널재배로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됐다.

1970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주참외 시설재배의 원년으로 기록된다. 이는 낙동강을 경계로 한 대구와의 사이에 다리가 놓이면서 원활한 운반수단 확보로 인한 집단 참외재배단지 형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정부의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이 성주참외 산업발전에 일조하면서 성주지역 내 참외재배농가의 각종 기자재 지원과 세금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부자농촌의 초석이 놓였다.

그 후 1995년까지 성주참외 작목회가 조직되는 등 축적된 재배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고당도 단성화계를 금싸라기의 전면 품종개량이 이뤄졌다. 또 삼중보온비닐의 확대보급으로 축성재배가 이뤄지고, 전체 참외농가 가운데 80%가 참외 연장재배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날로 개발되는 첨단재배 기법의 발판을 쌓아나가면서 199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현장 애로 기술개발이 농가 전역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부직포 덮기와 선별 작업, 덩굴제거작업 등 악성 노동과 작업시간 소모, 특히 제값을 받지 못하는 선별 불가 사례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주력한 시기였다.

그 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신 생산기술 도입을 필두로 생력화사업을 위한 기기와 시설 시스템 도입, 지표난방 도입 등의 축성재배 영농기법이 본격화되는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는 국내 최고의 명품 참외생산 메카로 자리 잡게 됐다.

이 같은 성주 참외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6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마트 팜 시대의 선도적 농가이자, 젊은 영농주인공이 출현(?)하기에 이른다.

"이젠 스마트 팜이 새로운 참외발전의 시작점이 됩니다."라며 4차 산업의 2세대 선두주자를 예고하고 있는 25년 경력의 유기농 성주읍지회 소속 백삼현(54)·황영순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스마트 팜 대표주자인 백삼현(54)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성주군 성주를 대흥리 참외 하우스에서 부인 황영순씨

백 대표 부부는 자동관수관비시설을 갖추고 천창자동개폐장치, 스마트 팜 제어시설, CCTV, 농장모니터링 시스템 컴퓨터, 기계 및 제어시설, 현장체험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혁신적인 참외재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은 이 같은 첨단 시스템을 통한 내부 환경의 정밀제어로 병해충을 경감시키고,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며, 과학적인 관리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의 재배환경을 살피고,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 농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백 대표는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차 산업에서부터 6차 산업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기업 형 농업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면서 현장 공개를 통한 확산 운동에도 기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백 대표 부부는 성주읍 대흥리에서 1만6500㎡(18동) 규모의 참외재배 하우스를 경작하면서 3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며 부자 농촌의 표본적인 시금석을 놓고 있다.

성주 참외는 전국 참외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4000여 농가에서 3500ha의 참외를 재배해 5000여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군은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 선진 기자재지원과 ICT 융·복합 사업지원 등 참외 산업발전 시책을 공고히 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참외 산업의 과학화와 데이터 베이스화로 참외 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젊은 농부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크게 한몫하면서 성주발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수화학, 스마트팜에서 담양 딸기 대규모 재배

담양군과 딸기 재배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 베트남 지역 등에 담양 딸기 판매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기사더 보기 +

등록 : 2019-05-09 16:22

댓글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구글+



▲ 이수화학과 담양군은 9일 담양농업기술센터에서 MOU를 체결했다. 오른쪽에서 3번째 이수화학 그린바이오사업본부 이경수 전무, 오른쪽에서 4번째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병창 소장. [사진 제공=이수화학]

이수화학은 9일 담양군과 프리미엄 딸기 품종의 중국 및 베트남 지역 보급을 위해 딸기 재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담양군으로부터 딸기 품종과 딸기 묘, 재배기술 등을 공급받아 올해 9월 중국 이닝시 현지에 준공되는 스마트팜 시설에서 연내 대규모 재배에 돌입한다. 추후 중국 및 베트남 지역 판매까지 진행하게 된다.

앞서 이수화학은 지난해 4월 중국 신장성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현지 농업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수화학은 해당 부지 45만㎡(약 13만 6125평)에 대한 토지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한국 딸기는 2015년 3300만 달러에서 2018년 4750만 달러 규모로 수출이 증가하며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지역에서 고급 과일로 정평나있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담양군에서 자체 개발한 죽향, 메리퀸 등 프리미엄 딸기 품종의 해외 진출 및 사업화에 대한 세부 계획들도 이번 MOU 내용에 포함됐다"며 "딸기뿐 아니라 내년 재배가 예상되는 토마토, 파프리카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형 스마트팜 선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립대 전기전자과, 스마트팜서 현장 학습중심 MT진행

장인철 기자 | 승인 2019.05.08 14:02 | 댓글 0



(사진=경북도립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의 MT문화가 바뀌고 있다.

먹고 마시기만 하는 MT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장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8일 경북도립대에 따르면 전기전자과 학생 41명은 지난 1일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위치한 흰여울스마트팜농장(흰여울농장)으로 MT를 떠났다.

흰여울농장은 온도, 습도, 풍향, 일사량, 토질상태 등을 IoT기술로 측정하고 적절하게 유지, 제어해 참외를 생산하는 스마트팜 기능을 구현한 농장이다.

학생들은 농장주로부터 시설하우스 32개동을 단 3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 배운 배전반 제작, PLC제어프로그래밍의 위력을 실감했다.

MT를 인솔한 김병문 교수는 “작물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귀농 농가나 초보 농가가 IoT기술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어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과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학생들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와서 눈으로 보니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접목해야할지 감이 온다”며 뿌듯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번 MT를 기획한 김영관 전기전자과 학회장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 MT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립대 전기전자과는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전기제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기 관련 산업과 IoT 기술의 융합분야에 우수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0학년부터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를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아일보] 예천/장인철 기자
jic1704@hanmail.net

스마트농업 날개 퍼다

👤 류우현 | ⌚ 승인 2019.05.06 15:11 | 💬 댓글 0

스마트팜혁신밸리-종자특구
농업리더양성-AI 특별방역 등
4차산업혁명 ICT원예시설 확충
원산지표시제도 지도-단속 강화
김제 난봉등 산지유통센터 건립
동물복지형 축사시설현대화
후계농업인 월100만원 정착자금
드론활용-신품종 9억7천만원 지원
국제종자박람회 종자산업 기여



광활한 김제평야의 농촌 도시 김제시.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시장개방과 지구촌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등 갖은 어려움과 위기로 피해를 입고, 열악한 농촌 현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희망은 있다.

이는 김제시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창출과 농가 고소득, 농산물 차별화, 스마트 농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제지역 농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발전과 지역농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어려운 농민들 위해 다양한 농업지원책 마련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등 농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경쟁력 제고사업, 원예생산 기반시설 지원 통한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을 위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31,586백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10,227ha, 5,304백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죽산콩영농조합, 1,000백만원)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래농업을 주도하는 선진 농업도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19.4ha, 총사업비 631억원), 종자생명산업특구(871,384m²) 구축,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10.23~10.26) 등을 개최했다.

또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및 농특산물 시장개척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농산물 상품 과 기반구축사업(용지농협, 감자선별장 및 창고, 저온저장고 신축, 917.7백만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농가조직화 및 리더양성 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520백만원)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 방역추진으로 안전한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키 위해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2차), 축사밀집지역 및 만경강 철새도래지 소독강화(용지 일 2회, 철새도래지 소독 주2회), 용지면 소재 소류지 및 취락농가 축협공동방제단 소독 실시(주2회) 등을 실시해왔다.

게다가 농업인 맞춤 전문교육, 품목별농업인 양성교육 등으로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글로벌 리더 육성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28회, 1,759명),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인증교육(11회, 1,311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 강화(28개연구회, 1,090명)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1,070백만원, 24개소), 첨단농업종자사업소(19,474m²), 친환경 농업 미생물배양실 구축(8,973m²)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을 구축 하고 있다.



▲2019년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에 '걱정 없이 농사짓고, 함께 잘사는 부자농촌 김제'를 목표로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타산업과 연계된 농생명산업으로 동반성장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스마트팜 구축으로 농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약 19.4ha, 총사업비 631억원)으로 청년인력양성, 민간 투자유치 및 청년 창·취업 확대를 활성화, 생활 복지인프라 확충 및 도농 연계사업 확장, ICT(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으로 농가별 맞춤형 스마트팜으로 첨단농업에 앞장선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창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역생산·소비를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여 공급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한다.

관내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추진으로 우리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100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푸드플랜 구축(2018.

11월 김제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먹거리 유통 전 과정을 망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4개소를 추가 선정(2018년 5개소 업체 지원)했으며, 김제시 난봉동 일대 5,623㎡, 26억원 규모의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해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과 장비를 갖춰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탄탄한 대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사람·동물이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주력

쾌적한 사육환경과 동물복지 관심 대두에 발맞춰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유도한다.

2019년부터 4년간 8,000백만원을 투자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인증농장 교육지원 등을 통해 과밀 사육 억제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로 동물복지형 축사시설현대화에 중점 지원하여 청정 축산을 조성하여 AI등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없는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시거점소독시설에 1개소를 추가해 총 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상시로 운영하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용지면에는 주요 진출입로에 소독시설을 겸비한 이동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현장에서 예찰 및 방역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전문교육으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선도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 육성과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핵심 농업인을 양성한다.

젊은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키 위해 후계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으며(회원 1,928명), 독립경영을 한 지 3년이 안된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새로운 품종과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사회(회원 700여명), 관내 9개교의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 4-H회,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개선회(회원 800여명)등 각종 농업인 단체를 위해 교육과 수련회,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품질 쌀 등 고소득작목 재배 신기술 보급 및 종자 산업 활성화 박차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제 쌀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5개 사업(김제 고품질 쌀 품종 선발 시범,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 서부 간척지 작부체계 실증시범, 감자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에 9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종서구입 절감 효과 톡톡,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로 종자산업의 붐 조성 및 국내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생산한 종서를 농가포장에서 2회 이상 증식하여 종서로 활용할 경우 1,000ha이상 재배할 수 있어 농가 소요량의 100%가까이 보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감자 재배 농가들의 씨감자 완전 자급화, 농가 소득 증대와 종서대의 외지로 유출 방지로 씨감자 구입비용이 15억 정도 절감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이 향상 될 것이다.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는 2회 때보다 2억 증액된 국비 총 7억을 확보해 산업교류관, 주제전시관, 체험교육관, 정책홍보관, 전시포 등으로 구성,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국내외 종자기업, 해외바이어 등이 참가해 국내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미래에 농촌이 새로운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농업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류우현기자